

“그립만 살짝 변화줬는데 명품 체인지업”

‘만년 기대주’ 김효남의 변신

SK와 연습경기 3이닝 1실점 부활투 차명석 LG 투수코치 “제구력 돋보여” “직구스피드 보완해 선발로 뛰고 싶다”

LG 투수 김효남(30)이 신무기를 장착하고 선발로테이션 합류에 도전하고 있다.

김효남은 28일 일본 오키나와 구시카와구장에서 열린 SK와 연습경기에서 선발 임찬규에 이어 등판해 3이닝 1실점했다. SK 김강민에게 우월솔로홈런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투구 내용이 나쁘지 않았다. LG는 이날 9-1로 승리했다.

김효남은 경기를 마친 뒤 “슬라이더를 던지다 홈런을 허용했다. 볼을 좀더 눌러서 던졌

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지만 변화구 컨트롤이 좋았고, 전체적으로는 오늘 경기에 만족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날 SK 타자들을 상대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3가지 변화구를 테스트했다.

차명석 투수코치는 “오키나와에 와서 오늘이 가장 좋았다. 제구가 낮게 된 게 무척 고무적이다”고 칭찬했다.

지난해 말 삼성에서 LG로 이적한 김효남은 차 코치와 상의해 체인지업을 새로 장착했다. 삼성 시절에도 체인지업을 연마했지만, 실전에선 잘 사용하지 않았다. 차 코치의 조언에 따라 그립에 약간 변화를 준 게 효과적이었다.

김효남은 “임준에게 2개, 박정권에게 1개의 체인지업을 던져봤는데 잘 들어갔다. 페넨트레이스 경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다.

김효남은 2006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뒤 ‘만년 기대주’에 머물러왔다. 1군보다 2군에 머문 시간이 더 길었다.

LG로의 트레이드는 전환점이다. 그는 “삼성에서도 몇 차례 1군으로 올라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잘 풀리지 않았다. 삼성 투수진이 워낙 두터워, 치고 올라서기 힘들다는 생각에 약삭같이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선발투수진이 약한 LG로 오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LG가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정신무장을 새롭게 한 그는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좋은 볼을 던지며 코칭스태프의 신뢰를 얻고 있다.

김효남은 “변화구는 괜찮은데, 직구 스피드가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시즌 개막 이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더 열심히 훈련

해 반드시 선발로테이션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키나와(일본)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트위터@gtyong11



지난해 삼성에서 LG로 트레이드된 김효남이 신무기 체인지업을 장착하고 2013시즌 선발에 도전한다. 이미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눈도장을 받았다.

사진제공 | LG트윈스



‘4월 복귀’ SK 이재원의 목표

“비룡 4번타자 후보 나도 있소~”

플로리다행 비행기도, 오키나와행 비행기도 타지 못했지만 쉽 없이 구슬땀을 흘렸다. SK의 새로운 4번타자 자리를 노리는 이재원이 힘차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작년 제대하자마자 손목골절 수술대 스프링캠프 불발...개인훈련 구슬땀 “5kg 감량 성공...4번타자 도전한다”

2012년 9월 드디어 ‘민간인’이 됐다. 상무에서 제대한지, 채 2주도 지나지 않아 대타 만루홈런을 터트렸다. 2012시즌 직후 이호준이 NC로 이적하면서, 팀의 4번타자 자리가 비었다. 2013시즌을 앞둔 이재원(25)의 의욕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돌발변수가 생겼다. 지난해 11월 대만에서 열린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가 왼 손목에 피로 골절이 생겼다. “점차 충격이 쌓이고 있었는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스윙을 하는데 ‘뚝’하고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결국 지

난해 12월 수술대에 올랐다. 1월 미국 플로리다주 베로비치 1차 스프링캠프는 물론이고 2월 일본 오키나와 2차 스프링캠프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그러나 국내서 누구보다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현재 수비훈련은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고, 70%의 힘으로 티베팅도 진행 중이다. ‘4월 중 복귀’라는 목표는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에도 이재원은 문학구장과 송도LNG구장을 오가며 담금질을 이어나갔다. 우선 지난 시즌보다 가쁜해진 턱선이 눈에 띄었다. 5kg를 감량한 덕분이다. “전지훈련 못가서 운동 게을리했다는 말은 듣기가 싫었어요. 체중관리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날 그는 점심식사로 ‘단백질 셰이크’로 대신했다.

사실 복귀시점을 개막전에 맞출 수도 있었다. 마음이 급했던 것도 사실이다. (최)윤석 등이 오키나와에서 훈련하는 생각을 하면, 제 마음도 그곳에 가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더 길게, 더 멀리 보기로 했다. “무리하다가 한 시즌을 그르칠 수 있다. 네 자신을 내려놓아라”라는 김용희 2군 감독의 조언이 큰 깨달음을 줬다. 현재 SK에선 박정권, 안치용, 조인성 등이 4번타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비록 국내에 있지만 이재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후보다. 이재원은 “(훈련량 덕분에) 지금 내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다. 4번타자 자리에도 도전하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문학 |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시범경기때 실수 좀 해야 하는데...” ‘무결점 중견수’ 추신수의 고민

앤서니 기자의 추신수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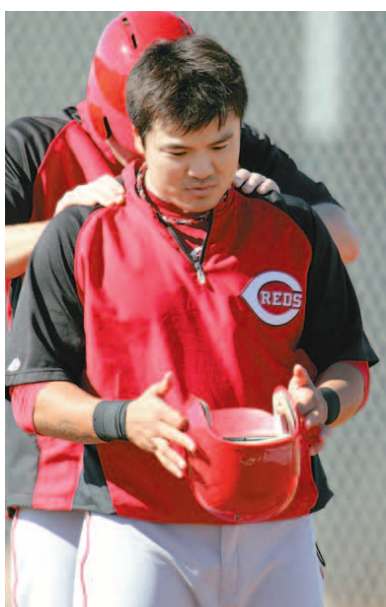
신시내티 유니폼을 입고 캐릭터 리그(애리조나주) 시범경기를 치르고 있는 추신수(31)의 행보가 순조롭다. 팀의 리드오프로서 득점에 성공하고 있고, 새로운 포지션인 중견수로서도 모든 플레이를 소화하고 있다.

물론 시범경기 결과는 정규시즌 성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새 시즌을 준비하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추신수는 외야에서 1~2개의 실수만 하길 바라고 있다. 또 2월과 3월 애리조나에서 쌓은 경험이 정규시즌이 시작되는 4월, 강한 햇빛으로 인해 눈이 부신 중견수 자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추신수는 중견수로서 “터프한 플레이”를 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라인드라이브성 타구나 훅 볼빛에

들어간 높은 플라이 볼도 잡으려하고 있다. 그는 “누구나 내가 했던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려운 타구도 아무렇지 않게 잡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면 센터로 이동할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신시내티도 ‘중견수 추신수’를 매우 인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우익수에서 중견수로 포지션을 이동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조용히 불식시키고 있다. 신시내티 데스티 베이커 감독은 “추신수는 진정한 프로선수다. 그는 야구선수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 한다. 그는 팬들을 것이다”고 말했다.

걱정은 없다. 현재 추신수는 마치 가을시즌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스프링캠프가



신시내티 추신수는 팀의 새 리드오프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신시내티의 한 동료 선수가 마치 ‘너만 믿는다’는 듯 미국 애리조나 굿어블파크에서 열리는 스프링 캠프에서 추신수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는 장면. 굿어비에 애리조나주 | 연합뉴스

끝나기 전에 자신을 향상시켜줄 몇 가지 실수를 하길 바라고 있다. 시범경기 때 실수가 정규시즌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MLB.com 기자

‘파란 괴물’ 류현진, 내일 20승투수 위버 넘을까?

통산 102승 52패 ML 대표 투수 타올 1위 에인절스 강타선 상대 경쟁자 부진속 이름값할지 관심

메이저리그 최강의 타선, 거기에 상대 선발은 지난해 20승을 올린 올스타 투수다. 제대로 맞붙은 만큼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6·LA 다저스)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2일(한국시간) LA 에인절스를 상대로 시범경기 들어 처음 선발로 등판하는 류현진의 상대가 제러드 위버(31)로 결정됐다. 위버는 빅리그 첫해였던 2006년 11승2패, 방어율 2.56을 기록하며 ‘괴물 신인’으로 주목받은 투수다. 2009년 16승(8패)으로 리그 정상급 투수로 발돋움한 뒤 지난해 개인 처음으로 20승(5패) 고지에 올랐다. 에인절스에서만 7년을 뛰었고, 통산 102승52패, 방어율 3.24를 기록 중인 에이스다.

25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2번째 투수로 등판해 1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경쾌하게 첫 걸음을 옮긴 류현진은 빅리그에서도 손꼽히는 에이스와 선발 맞대결을 펼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더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특히 에인절스는 지난 시즌 메이저리그 팀 타올 전체 1위(0.274)를 기록한 강타선을 자랑한다.

현재 류현진과 선발 자리를 다투고 있는 팀 내 경쟁자들이 잇달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요소다. 채드 빌링슬리와 크리스 카푸아노는



‘괴물’ 류현진(LA 다저스)은 2일 LA 에인절스의 시범경기에 선발로는 처음 등판한다. 상대 선발투수는 지난해 20승 고지에 오른 ‘ML란 괴물’ 제러드 위버(오른쪽). 연합뉴스

27일 시카고 컵스전에 나란히 등판해 모두 고개를 떨궜다. 빌링슬리는 2이닝 5안타 1홈런 2실점, 카푸아노는 홈런 2개를 맞으며 2이닝 4실점했다. 28일 역시 컵스전에 나선 애런 하랑도 2이닝 5안타 1볼넷 4실점의 부진을 보였다.

클레이튼 커쇼와 잭 그레인키만이 일찌감치 1·2선발로 낙점된 상태에서 류현진, 조시 벡트, 테드 릴리 등 총 6명이 나머지 세 자리를 다투는 다저스의 선발경쟁이 흥미롭게 됐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kimdohoney

올 KBO 타이틀스폰서는 한국야쿠르트

후원금 60억여원...역대 최고액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올 시즌 프로야구 공식 타이틀스폰서로 한국야쿠르트와 손을 잡았다. 후원금은 역대 최고액인 60억여원(추정)으로 알려졌다.

KBO는 28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7층 브리핑룸에서 한국야쿠르트와 2013년 프로야구 타이틀스폰서 조인식을 개최하고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KBO 구본능 총재와 한국야쿠르트 양기락 대표이사는 조인식 후 올 시즌 프로야구 공식 명칭을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구 총재는 “지난해 700만 관중을 돌파한 프로야구는 올해 9구단 체제로 운영된다”며 “한국야쿠르트와 함께 프로야구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양 대표는 “올해 프

로야구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야쿠르트도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BO는 (주)팔도와의 타이틀 후원 계약이 지난해를 끝으로 만료되자 2009년부터 서비스폰서로 활동해온 한국야쿠르트를 새 후원사로 맞이했다. 올해 말까지 프로야구를 후원하는 한국야쿠르트는 타이틀 브랜드인 발효유 ‘7even(세븐)’처럼 활력 넘치고 즐거운 프로야구를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후원금은 지난해 팔도의 55억원(추정)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해졌다.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6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keystonelee

탤파베이 이학주 시범경기 첫 안타

탤파베이 유망주 이학주(사진)가 28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브레이튼 맥케니필드에서 열린 피츠버그전에서 2타수 1안타 1타점으로 시범경기 첫 안타와 타점을 신고했다. 신시내티 추신수는 애리조나전에 결장했고, LA 에인절스 최현은 샌프란시스코전에서 2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넥센, 삼성과 연습경기 5-2 역전승 넥센은 28일 일본 오키나와 아카마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5-2로 역전승했다. 넥센 선발 김병현은 2이닝 1안타 1탈삼진 2볼넷 1실점을 기록했다. 삼성 새 외국인투수 릭 밴덴헨크는 첫 연습경기 등판에서 최구속 152km를 찍으며 1이닝 1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mss23